

R&L, 인체용 조류독감 소독제 개발

동물용과 함께 의약외품으로 허가 신청 ... 천연물 성분으로 인체무해

바이오기업 알앤엘바이오(대표 라정찬)는 천연물을 이용한 인체용 조류독감 소독제(제품명 그린존)를 처음으로 개발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동물용 의약외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신청했다고 10월31일 발표했다.

R&L은 개발제품에 대해 건국대 송창선 교수팀과 서울대 박용호 교수팀에 의뢰해 효력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과 SARS(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 괴질 등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소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존이 매실, 자몽종자 등 천연물 성분으로 조성돼 있어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조했다.

알앤엘바이오는 동물용 의약외품 허가가 나오는데로 양축농가에 방역용으로 공급하는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관공서, 병원 등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공공장소에 인체용 소독제로 보급할 계획이다.

R&L은 개인용 및 가정용 소독제로도 개발해 2006년말 세계 20여개국에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1/01>